

5. 칸나와 달리아 핀 마당

누상동 9번지

일요일 오후, 두 젊은이가 누상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총독부가 앞에 떡 버티고 있긴 했지만 궁궐의 정전[●]이 남아 있고, 군데군데 무너지기는 했어도 켄 담이 아직 서 있었다. 일본식으로 부르는 무슨 무슨 ‘정(町)’보다는 옥인동이니 효자동이니 누상동이니 하는 이름이 더 자연스러운 동네였다. 대궐 서쪽에 있어 ‘서촌’이라고 불렸다.

● 정전(正殿) |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 경복궁에는 근정전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학생복 바지에,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었다. 앓던 쪽이 쓴 사각 학생모의 금빛 배지가 오월 햇살을 받아 번쩍 거렸다. 동주와 병욱이었다.

“형, 이 집인 것 같은데요? 누상정 9번지.”

“제대로 찾아왔나 보군요. 그런데 김송, 김송이라면…….”

병욱은 문패를 보며 주소를 먼저 읽었고, 동주는 집주인의 이름을 유심히 보았다.

“희곡도 쓰고 극단 일도 하시는 작가 김송 선생일까요?”

“같은 이름이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문을 두드려 봅시다.”

동주와 병욱은 올해 들어 기숙사에서 나와 하숙했다. 작년부터 쌀과 잡곡 등 식량 배급이 실시되었고, 올 사월에는 생활 필수 물자에 대한 통제령도 내려졌다. 소금이나 기름 같은 조미 식품과 채소와 계란 등 부식 양까지 정해져, 기숙사의 식단과 생활이 몹시 나빠졌던 것이다. 2학년이 된 병욱도 학교 밖에서 지내 보고 싶어 해, 문안 누상동까지 들어왔다. 한 달쯤 잘 지낸 하숙에 사정이 생겨 급히 다른 곳을 구해야 했는데, 같은 누상동 골목 전신주에 ‘하숙 있음’이라 붙여 놓은 종잇장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집 앞에서 한숨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야말로 동네 뒷산이 인왕산이었다. 열린 골목 끝에 희고도 미끈한 인왕산 바위가 성큼 다가와 마주 서 있었다. 오월 햇살을 받아 더욱 희게 빛나는 바위는 손으로 만져 보고 싶을 만큼 가깝고도 따스해 보였다.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신문과 잡지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작가 김송이었다. 고향 함흥에서 희곡을 쓰면서 극단 운영도 했는데, 경성으로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된다고 했다. 연극은 다른 예술보다 총독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주입하는 데 더 적합한 장르다. 그만큼 당국의 간섭과 요구도 심했다. 김송 씨도 방공 방첩의 시대극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자, 아예 극단을 접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덕분에 감시가 필요한 ‘요시찰인’으로 찍혀 있다고도 했다.

동주와 병욱이 작가 김송 씨 댁의 문간방 하숙생으로 지내는 생활은 평화로웠다. 김송 씨 내외와 세 아이, 그리고 서양개 포인터가 사는 집이었다. 위로 두 아이는 소학교, 아니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 ‘국민학교’ 학생이었다. 사람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입하려고 바뀌 놓은 이름이었다.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일곱 살 난 막내 진규는 특히 하숙생 형들을 잘 따랐다. 동주와 병욱도 고향 집에 두고 온 어린 동생처럼 진규를 귀여워했다. 학교 가지 않는 공일에 같이 마당에서 놀다 보면, 용정 중학 시절에 쓰던 시, 연전 신입생 시절만 해도 자주 쓰던 동시가 저절로 나왔다. 동주가 쓴 동시를 들려주면 진규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다. 특히

「병아리」를 재미있어했는데, “뽀, 뽀, 뽀” 병아리 울음소리를 내며 마당을 강중강중 뛰어다녔다. 응석받이 막내라 그런지 밤에 더러 실수도 했는데 그런 날에는, 마당 빨랫줄에 걸어 놓은 이부자리를 보며 진규의 형이 짓궂은 목소리로 동주의 시 「오줌싸개 지도」를 외었다.

“뽀뽀에 걸어 논
요에다 그린 지도는
간밤에 내 동생
오줌 싸서 그린 지도.”

그러면 진규는 자꾸 들려 달라며 좋아하던 이 동시를 질색했다.

안주인 조성녀 여사는 성악을 전공한 멋쟁이 신여성이었다. 집에서 옷맵시를 훌뜨리지 않았고, 곱슬머리 같은 전발 기를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썼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는 오전에는 근처 유치원의 보모로 일했다. 문간방에 하숙까지 치는 것을 보면 당국의 감시를 받는 작가의 생활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신문도 없어졌고, 예상대로 조선어 잡지도 폐간되었다. 글을 써 봐야 발표할 지면이 없으니 얼마 안 되는 고료나마 수입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간간이 설화나 야담 등을 써서 얻는 원고료로, 김송 씨는 가장의 체면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조성녀 여사의 손길이 닿은 집 안 곳곳은 정갈했고, 여사는 하숙생도 살뜰하게 챙겼다. 김송 씨 내외도 동주와 병욱을 무척

좋아해, 주인과 하숙생이라는 생각 없이 한가족처럼 지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문학과 음악,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성에 올라와서도 김송 씨가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연극인들의 총력 연맹 결성을 앞두고 참여할 것을 독촉받았던 것이다. 한때 절친했던 벗이 찾아와 그런 소리를 하고 가면 김송 씨는 못 견디게 괴로워했고, 동주와 병옥을 붙들고 늘어놓는 이야기가 길어졌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오는 봄날 저녁에는 안주인이 아껴둔 홍차를 내오기도 했다. 기분이 더 내키면 아름다운 소프라노 노랫소리도 들려주었다. 부부가 모두 예술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좋아해, 여느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빅터 전축도 있었고 음반도 꽤 많았다. 하나둘 세간을 처분하면서도 마루 한쪽에 놓인 전축만큼은, 날마다 안주인이 먼지 떨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소중히 여겼다. 동주와 병옥이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반기며, 주인들이 집에 없을 때에도 자유로이 골라 듣게 했다.

동주가 특히 좋아하는 음반은, 러시아의 위대한 베이스 표도르 살라핀의 것이었다. 살라핀의 저음에는 광활한 북국의 침엽수림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담겨 있었다. 고향 북간도의 겨울이 느껴지기도 하는 목소리였다. 한때 불가 강의 배 끄는 노동자였다는 살라핀이 어깨 근육을 움직이며 불렀을 「불가 강의 뱃노래」나, 러시아 농민 반란군 지도자를 노래한 「스텐카 라진」은 몇 번이

고 레코드판을 돌려 가며 들었다. 살라핀의 저음에 취해 있으면 진규도 옆에 다가와 「스텐카 라진」의 한 소절을 발을 구르며 따라 부르기도 했다.

대문 밖을 나서면 총력전의 구호가 나부꼈고 국방색 국민복에 표정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누상동 9번지 하숙의 안마당은 주홍색 꽃이 피어 있는 석류나무 아래 붉고 노란 칸나와 달리아가 어우러진 화원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충직한 개 포인터가 집을 지키고, 장대 높이 매 놓은 빨랫줄에는 식구들의 옷가지가 햇볕에 말라 가고 있었다. 단란한 가족의 보금자리면서, 주인과 손님의 미덥고도 은근한 사귀이 있는 곳이었다.

동주에게나 병옥에게나 또 그 어느 조선 청년에게나, 고단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문득 싱그럽게 빛나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다. 동주와 병옥이 누상동 하숙에서 보낸 시간이 그러했다. 식민지가 되어 버린 나라와 젊은 목숨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야만의 시대조차 막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눈웃음과도 같은 젊은 날의 한순간이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름이 오기 전 동주의 원고 노트에는 무려 일곱 편의 시가 깨

곳이 쓰여 있었다. 누상동 하숙으로 옮긴 뒤, 오월 말부터 모두 완성한 것이다.

이즈음 동주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일과도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병욱과 함께 뒷산 인왕산에 올랐다. 바위산 중턱의 탁 트인 곳에서 심호흡하고 맨손 체조를 하며 문안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흔히 남산에서 보는 경성 조망을 제일로 치지만, 동주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좋아했다. 조선 기와지붕의 처마 곡선이 잇대어 있고, 조선 옷 입고 아침을 여는 사람도 많이 보였다. 남산은 일본 신사가 있어 그런지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일본인들이 꾸며 놓은 변화가 모습도 보기 싫었다. 평평한 바위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다가 인왕산 골짜기 아무데서나 샘솟는 샘물에 세수를 하고, 다시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학교 가는 친구 누나와 형과 함께 아침상을 받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연희전문 교복을 입은 하숙생 오빠나 형과 함께 골목을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조선 은행까지 오는 전차를 갈아타고, 문안의 신간 서점과 고서점들을 두루 순방했다. 음악 다방에 들러 새로 산 책들을 뒤적이며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러 명치좌에 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내려진 ‘조선 영화령’으로 서양 영화는 수입과 상영이 금지되다시피 했고,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한 문예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극장 간판에는 총독부의 방침을 선

전하는 영화만 걸려 있어 발길을 돌릴 때가 많았다.

가로등 불을 밝힐 무렵 하숙에 돌아오면 조출하지만 정갈한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김송 씨가 울적해하는 날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동주는 술을 그다지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취기가 올라도 말이나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병욱이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후배 병욱과 사귀 지도 이 년이 되어 가건만, 여전히 동주는 존댓말을 쓰며 병욱을 존중했다. 막 완성한 시를 보여 주며 의견을 묻기도 했으니, 동주 시의 첫 번째 독자는 병욱인 셈이었다. 동주가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떠오르는 시상에 집중하거나 원고 노트 위에 정서하고 있을 때면 병욱은 행여 방해될세라 제 나름대로 조심했다. 나란히 놓인 자신의 책상에 앉지 않고 멀찌감치 벽에 기대어 책을 보거나 흐뭇한 표정으로 동주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은 동주가 잠시 생각하다,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 건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정 형, 이것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_1941. 5. 31.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절망의 끝에 결국 동주는 닿아 본 것

일까. 끝없이 빠져드는 깊은 늪 속을 허우적거리다 마침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짓말처럼 고요히 몸을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그 순간을 느낀 것일까. 동주의 새로운 시는 맑고도 담담했다. 마땅한 시구를 찾느라 언어를 유리알처럼 굴리며 애쓰지 않아도, 캄캄한 동굴에 홀로 있는 것처럼 갑갑해 고통지르지 않아도 되었다. 땅속 깊고도 거친 수맥을 헤쳐 오면서도 지표면에서 고요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건드리는 시였다. 굳이 습작 노트에 잉크 자국을 많이 남길 것도 없이, 말하듯 담백하게 샘솟아 나오는 시를 원고 노트에 옮겨 적으면 되었다.

어릴 때 본 하느님을 동주는 다시 보았다. 괜히 어두컴컴한 절망 속을 헤매거나, 으리으리한 교회 제단 앞에 습관처럼 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다. 집 앞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람들로 부대끼는 전차 안에서, 저물녘 산책길에서나, 역 앞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내민 손길에서도 문득 마주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신은, 식민지가 되어 버린 조선 땅 어디에든 모습을 드러내었고 동주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온 신이 걸어간 마지막 십자가의 길. 이천여 년 전 유대의 골고다 언덕에서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 줄 모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마주 대하게 되는 길. 언젠가 그 길이 자신 앞에 놓인다 해도, 저물어 가는 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